

세계

양계산물 생산, 소비동향

동남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AI로 인해 양계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까지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양계산업이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의 경우 지난 1996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아프리카 지역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계란의 경우는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WP)

표1. 닭고기 생산과 소비동향

지역	생산(천톤)		연평균 성장률(%)	1인당연간소비량 (kg, 2001년)	
	1996	2001			
NAFTA	114,049	16,818	3.9	미국	40
				멕시코	21
라틴아메리카	5,311	7,553	8.4	브라질	30
EU-6	4,724	4,859	0.6	독일	8
				스페인	22
동유럽	698	725	0.8	루마니아	4
				헝가리	17
구소련	311	415	6.7	러시아	9
중동	371	456	4.6	사우디아라비아	33
아프리카	1,017	1,464	8.8	아프리카공화국	21
				이집트	7
아시아	8,540	9,775	2.9	중국	5
				일본	13
오세아니아	453	590	6.0	호주	30
계	35,474	42,655	4.0	-	-

표2. 계란 생산과 소비동향

나라/지역	생산량 2001(백만개)	2001 수입량(수출대비)	1인당 연간 소비량(개)	연평균 소비증가율(%)
미국	85,020	1,950	258	+1.7
캐나다	64,00	0	176	-0.4
멕시코	33,640	178	325	+3.6
브라질	16,435	35	93	+0.6
EU-15	73,835	2,047	153, 영국 265	-
러시아	34,200	75	220	0
중국	389,000	1,036	301	+9.5
일본	42,000	1,800	346	0
기타	115,181	816	-	-
계	795,711	2,581	-	-

자료(USDA, FAO)

해외양계뉴스

**중 국**

**VIV China 9월 7~9일 상해로 연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 지역이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에 개최키로했던 VIV China 축산박람회가 오는 9월 7~9일 양일간에 걸쳐 상해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장은 관람객들과 출품신청을 한 업체들에게 전혀 불편이 없도록 시설이 완벽한 상하이 에버브라이트 국제 전시장에서 개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에서 최소한 4~5월내에 AI가 종식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상해는 중국으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북경에서의 개최 못지않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06년에 개최되는 VIV China는 다시 북경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중국은 지난해 1,400만톤의 가금육을 생산하였으며, AI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여름들면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VIV)

**러시아**

**제1차 국제 축산박람회(VIV Russia) 개최**

러시아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과거 경제위기 이후 수준을 넘어서는가 하면 양계산업의 경우에도 몇년 안에 15% 이상의 성장을 거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금년 5월 25~27일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제1회 국제축산박람회(VIV Russia)가 개최된다. 구소련의 모임체인 CIS(독립국가연합)는 러시아가 양계산물의 수요가 늘고, 생산기술 또한 급성장하면서 박람회를 개최가능성을 시사해 왔었다. 이번에 전시될 주요 축종은 닭, 소, 돼지이다.

**우간다**

**양계산업 성장 잠재력 커**

아프리카 동부 내륙국인 우간다는 최근 3년동안 물가 및 환율안정 등의 영향으로 인구가 지난 2002년에 비해 3%증가한 2,543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슈퍼마켓 확대 등 양계산물 소비 또한 큰폭 상승하고 있다. 우간다의 가금육 소비중 오리는 전체소비의 3%, 칠면조는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3년전에 비해 3.5%의 가금육소비 성장을 보였다. 특히 금년의 경우 주변국들(케냐, 르완다, 브루나이, 수단, 콩고)로부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닭고기는 10~15%, 계란은 9%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WP)

**영 국**

**핵지뢰에 '닭(?)' 투입 검토**

영국군이 냉전 당시 '살아 있는 닭'을 핵지뢰 온도조절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했었다고 영국 언론들이 지난달 보도했다.

영국은 지난 1957년 서독으로 진격하는 소련군을 독일 평원에서 괴멸시키기 위해 7톤 짜리 핵지뢰를 터뜨린다는 이른바 '블루 피콕' 작전을 수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핵지뢰를 땅속에 묻은 뒤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영국의 핵물리학자들이 '살아 있는 닭을 모이와 함께 핵지뢰 내부에 넣어 둘 것'을 제의했고 러시아가 진격시 원격조정을 통해 폭발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해에는 미국이 이라크의 화학무기를 찾아내기 위해 닭들을 이용, 정찰을 계획하는 등 닭들이 전쟁의 도구로 종종 거론되면서 수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YTN))